



습근평 중앙기업 사업에 대해 중요 지시 내려 강조
직책과 사명 충분히 인식하고 당과 국가 사업 대국에
더 잘 봉사하며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더 큰 힘 기여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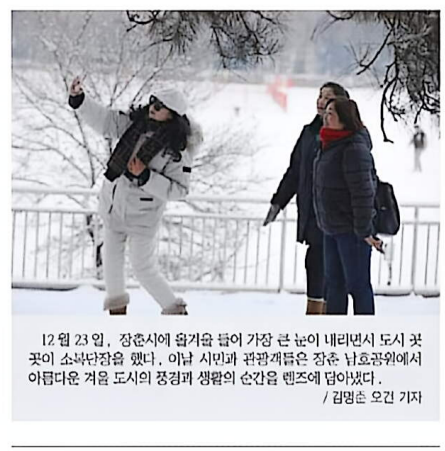
리강 중앙기업책임자회의의 참석 및 연설

[북경 12월 23일법 신화통신]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인민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은 최근 중앙기업 사업에 대해 중요 지시를 내렸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중앙기업은 당중앙의 경제 포석을 철저히 관철하고 국가 전략에 적극 봉사하며 국민경제에서 기간과 자주 역할을 발휘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새로운 도정에서 중앙기업은 어깨에 짚어준 직책과 사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하며 경제와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민생 보장과 개선을 위해 봉사하며 사회책임을 유감없이 감수하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더욱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 주요 직책과 주요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국유경제 구조도면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핵심기능을 정실히 증강하고 핵심성능을 제고해야 한다. 상품경제에 뛰어들어 관련 핵심기술의 난관공략을 강화하고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동해야 한다. 개혁을 기밀성 신뢰하고 중국특색의 현대기업 제도를 보완하고 회사 관리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발전을 제약하는

심층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세계 열류 기업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 발전과 안정을 증강하고 위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하며 기업이 인신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져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의 전반적인領導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기업의 지도부 건설을 강화하고 당을 신뢰하고 당을 따르는 책임을 다하며 당의 영도하에 파사 관리의 어려움과 어려움에 대응하고 추동하고 단결심 사투리 생산경영의 실증적인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 제도를 보완하고 감독을 강화하며 부패를 단호히 징벌하고 '내가지 기풍'을 꾸준히 비로잡아 기풍이 바른 정치생태를 적극 조성해야 한다. 중앙기업책임자회의는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북경에서 소집되었다. 회의는 습근평의 중요 지시를 전달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강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 리강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는 중앙기업에 대해 명확한 요구와 간곡한 희망을 제기하는바 매우 중요한 전략

성과 지도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기업 사업을 잘할 데 대해 방향을 일층 분명히 해졌다. 우리는 이를 깊이있게 학습 터득하고 관철과 사명을 잘 붙여 취해야 한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5.5' 전략개척 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전반적인 실현을 위해 기업을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중앙기업은 사상과 행동을 정치에 대한 명중양의 과학적 반인과 경제 포석을 완결시키고 방위력 일층 강화하며 위치를 정화하여 적과 사명을 전철히 짊어지려 한다. 중대한 기년사업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강력한 보장을 제공하고 정품 기반 사설의 건설과 디지털, 지능화 개조를 다그치며 신형 기년사업 건설을 적극 앞서서 전개해야 한다. 산업사수, 공급사수의 자주적 통제 가능성을 실현하는 과정에 주력군 역량을 잘 담당하고 주요 직책, 주요 사업과 결부하여 신형산업과 미래산업을 발전시키며 지역 자원 공급을 보장하고 산업사수의 근성을 높여야 한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립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초 비법특을 강화하고 응용 기초연구를 강화하여 첨단 공업생기

술 공급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가의 중대한 전략을 위해 봉사하는 과정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행동하여 집단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한다. 국유자산, 국유기업 개혁을 일층 심화하며 국유경제 배치를 최적화하고 현대기업제도를 보완하며 국유자산 감독관리 능률을 제고하는 등 당에서 앞장서야 한다. 당의 지도를 개혁비전의 제반 분야의 전면 과정에 일관시키고 당을 전면적으로 일하게 디스라는 것을 중심으로 추진하기가 바른 정치생태를 조성해야 한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앙기업 책임자는 더욱 분발 노력하는 정신 상태로 직책을 리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대외 관념을 증강하고 주요보수를 잘 다루며 과감하게 개혁 혁신하고 복잡한 국면을 돌파하며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제고하여 기업을 이끌고 개혁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야 한다. 장광징이 회의를 사회하고 오정봉이 회의를 참석했다. 중앙과 국가 기관 관련 부처, 중앙기업, 중앙 관리 금융기업 주요 책임자 등도 회의에 참가했다.



12월 23일, 장춘에서 얼거늘을 이어 가장 큰 눈이 내리면서 도시 곳곳이 소백산처럼 됐다. 이날 시민과 관광객들은 장춘 난요관원에서 아름다운 겨울 도시의 풍경과 생생한 손길을 렌즈에 담았다. /김명호 오건 기자

연변, 2025년 전국 미식관광 모범사례에

연변이 2025년 전국 미식관광 모범사례에 선정되었다. 21일, 중국관광연구원, 호남성문화관광연구원, 상하이인민정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미식중국 - 2025 미식관광 발전 행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공개되었다. 행사 현장에서는 <2025 중국 미식관광 발전 보고서>와 <2025 미식관광 전략 활동> 모범사례 발표 등 다수의 주요 성과가 발표되었다. 연변주만리러지오메레비전방송 및관광국이 제출한 '미식 IP를 신화해 연변의 트래픽 엔진 구축' 사례가 2025 미식관광 전략 홍보 활동의 모범사례에 선정되었다.

왕광 명소 선정, '맛과 멋의 인연' 음식권 신장 대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함과 아울러 <연변주 미식 그림시도>를 발행해 브랜드 인지도도를 높였다. 2025년에는 '세계관광명대'를 개최해 '중국 10대 명대' 중 하나인 연변명대의 명성을 한층 더 높이고 음식을 단순한 맛보기에서 대화, 체험, 소비로 확장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연변주는 전통 음식을 재창조하고 상품화하는 데 적극 나서면서 연변소고기국, 연변명면, 견소빈대, 비빔밥 양념장 등 다양한 민속음식을 선보여 관광객들이 '연변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어 한다고 했다. 연변주는 미식을 핵심으로 '미식 + 문화 + 관광'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복제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축제와 병행 관광예측 투입 유도, 제품 혁신, 체험 승격을 통해 저질형 IP로 전환시키고 있다. 브랜드 체계 구축과 시장 기반 운영에 중점을 두고 관광계의 참여도와 소비자 충성도를 높이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연계 발전간 협력을 강화해 미식관광을 바깥으로 체계적인 '미식 IP'를 구축하고 있다. 축제 행사를 통해 제품 혁신과 체험의 융합을 추진함으로써 미식관광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목적지 브랜드의 향상과 산업의 협력적 발전을 실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식 + 문화 + 관광'의 융합 모델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지역 특색의 식재료와 음식 문화를 중심으로 '김치명품', '김치문화명품', '송이축제', '단장축제', '커피축제' 등 다양한 주제의 축제를 기획하고 가장 연변다운 곳

조선족 무용, 전통과 혁신으로 중화민족의 '동심원' 그린다

— 전통 춤사위가 펼쳐 보이는 민족단결의 시대적 맥박



▲ 2025년 10월 10일, 경운에서 열린 경림시 대중문화공연에서 인도문화관대표단이 세실계한 전통 복장을 입고 유인하인시도 원천 동적으로 아박춤을 선보이고 있다. /인도연문화관

장백산 기슭에서 해마다 바다가 가까워, 시화구의 광장에서 디지털 콘텐츠로 펼쳐져, 조선족 무용은 이제 민족의 부패를 넘어 중화민족의 '동심원'을 그리는 삶이 되는 축으로 되고 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조선족 무용은 더 이상 단순한 공연예술이 아닌, 디지털이 함께 호흡하는 문화교류의 정으로 진화하고 있다.

예술 실천을 통한 민족 융합

조선족 무용 문화는 '강함과 부드러움의 조화, 내면과 외형의 균형'을 핵심으로 하여 농경생활에서 비롯된 내재적인 힘이 함을 상징하는 우아한 특징이 하나로 어우러진 독특한 미감을 보여준다. 세시대에 조선족 무용의 진

승과 발전은 한 민족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민족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장되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안도연문화관의 경우, 무용수 50명중 45명이 비조선족으로 민족간 문화 융합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준다. 안도연문화관장 김부부씨가 라파엘은 "이는 여러 민족이 문화 영역에서 깊이 융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족 무용은 중화문화의 일부로서 우리는 다른 민족과 함께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선족 무용은 중화문화의 일부로서 우리는 다른 민족과 함께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 중화민족의 일원"이라며 예술적 실천이 상호 리해와 공동체 정체성(认同)을 깊이 이룬다고 강조했다. 리오 공연부터 전국적 무대까지 조선족 무용은 이처럼 디민족이 함께 호

유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변무용단(이리)은 정통 배후를 위주로 인민대회의 교직원, 학생(학생, 조선족, 민족 등 150여명)이 참여해 제5회 전국소수민족문화공연에서 최고상을 수상했으며 공연 기간 표류 구하가 어려운 성도로 복합적인 인기와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김명성시회비하인 연구원 주립춘은 "조선족 무용은 송화 우수 전통문화의 중요한 담체로서 시대에 맞는 창작 방식을 통해 중화민족 공영의 발전기원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독특하고 깊이 있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화유산에서 대중문화로의 진화

일정 지지가 안도연문화관을 찾았을 때 이 문화관 관심에서는 40여명 교원생들이 아박을 손에 들고 조선족 전통 무용(아박춤)(牙舞)을 배우고 있었다. 지도자는 성급 무용문화유산 전승인의 80년대생 김영희였다. "기운의 아박춤은 꼭조각 그리고 저분한 존재이다. 나는 여기에 현대무용의 경쾌한 리듬을 도입하고 의상과 동작을 재구성해 젊은 세대가 쉽게 표현했다." 김영희의 창의적 시도는 고전예술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녀가 세립계 구성원(아박춤)은 지역사회, 학교, 마을로 확산되면서 일상에서 정승되고 있다. 그녀의 재사는 조선족 문화의 깊이 사명하는 90년대생 관공 청년 김민(31)이다. 공민은 "민족 구분이 없이 중화민족의 아름다움 문화는 모두가 함께 누리고 지켜나가기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번으로

가요
고운 단풍 하나
고운 단풍 하나
작사: 림 해 작곡: 림홍문 편곡: 조인경
노래: 한선녀 편집: 김봉남